

중풍 용어 표준화 및 영번역 방안에 관한 연구

이주아*, 이정섭*, 강병갑*, 고미미*, 문태웅*, 고호연**, 박선영**, 정희***, 방옥선*

한국한의학연구원 뇌질환연구센터*,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한의학 정책 연구소***

A Study For Standardization of Stroke Terminology

Ju Ah Lee*, Jung Sup Lee*, Byung Kab Kang*, Mi Mi Ko*, Tae Ung Mun*, Ho-Yeon Go**,
Sun-Young Park**, Hee Jung***, Ok Sun Bang*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Policy,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Background : Currently, the absence of a unified terminology and proper translation abou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s a problem that should be solved. Althoug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as undergone steady growth in popularity during the past years, the Westerner's poor access to information has been drawback to its reception in the West.

Objective : This research is aimed to seek system for standardization of stroke terminology and proper translation into English.

Conclusion : We proposed the method of making unified terminology and translation about stroke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ey Words : Standardization, stroke, terminolog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서론

표준화란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체계나 품질 등을 맞추는 것을 뜻한다. 현재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표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문을 연구할 때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연구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 연구의 집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표준화가 필요한 것이다. 한의학에서도 용어 및 변증의 개념, 약재, 처방 등 모든 구성요소가 표준화의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개념의 통일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데 실제 개념은 용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언어로 표현되므로 개개의 용어를 공통

적인 개념으로 표준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념의 혼재로 인해 연구가 행해질 때마다 개념을 담은 용어의 통일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한의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대한 한의학회는 한의학 용어의 표준화를 목표로 분과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한의학용어제정사업”의 결과물로 ‘한의학 용어집’을 발간하였다¹⁾. 그러나 홍보의 부족으로 한의사 및 관련 연구자들의 활용은 저조한 편으로 앞서 말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한의학 용어들은 영어번역의 표준화 역시 시급하다. 특히 현재는 한의학의 국제화, 과학화의 바람이 한창이다. 서양에서는 날이 갈수록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

교신저자 : 방옥선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 한의학 연구원
전화 : 042-861-1994 팩스 : 042-868-9370 E-mail : osbang@kiom.re.kr

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한의학의 과학적인 검증 및 결과물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용어들을 국제적 표준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로 알맞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의학의 연구결과를 널리 알릴 수 있으며 기존연구와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집적 결과도 가져 올 수 있게 된다. 이 작업을 위한 시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2,3)} 결과물에 대한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동일한 한의학 용어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다른 영어표현을 쓰고 있다.

현재 한의학 연구원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한의 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중풍표준용어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의학의 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풍의 한의학 용어 표준안 및 적절한 영번역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결과물의 홍보 방법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의학 용어 전체의 표준화 및 국제화를 위한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론

1. 현재 진행된 국내 및 국제 한의학 용어의 표준화 현황

1)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제정사업

2000년부터 진행된 대한한의학회의 표준한의학용어제정사업은 산하 분과학회 중 19개 정회원학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기초자료로 각 분과학회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논문, 보고서,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하여 용어를 수집하였으며 동양의학대사전(성보사, 2000), 동양의학사전(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등 사전류에 속한 용어들을 수집, 이를 취합하여 사용하였다. 과정을 거쳐 대표표제의 수는 5,489개로 정리되어 표준한의학용어집으로 2006년 발간되었다⁴⁾. 현재는 발간된 용어집의 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한국 한의학 연구원의 한의학술정보화연구²⁾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서는 한의학술정보화연구의 일환으로 『한·영 한의학 사전』을 D/B화 하였다. 《한의학대사전》, 《한의학사전》 등 기존에 간행된 여러 가지 한의학사전과 《동의보감》, 《황제내경》, 《상한론》, 《난경》 등 여러 한의학 문헌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생리, 병리, 경혈, 본초, 방제, 침구, 치법, 도인, 안마, 기공, 양생, 인명, 서명, 사상의학 등 한의학 관련 내용을 포괄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한의학의 학술교류 및 연구에 사용할 영어표준화를 위해 영문번역을 병행하여 『한·영 한의학 사전』을 만들었다.

3)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국제 한의학 표준용어의 개발

세계보건기구서태양지역사무국(World Health Organization/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HO/WPRO)에서는 전통의학에 대하여 표준화 및 근거중심이라는 2가지 원칙에 따라 전통의학 정책, 교육, 용어 표준화, 임상진료가이드라인 등 여러 분야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중이다⁵⁾.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로 2007년 국제한의학표준용어집(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IST)이 출판되었다. IST는 한의학 용어의 다양한 영문 표현을 통일하여 한의학 전문가 및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Xie의 용어집을 저본으로 하였다. 한중일 간에 2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은 용어만을 표준용어로 정하는 용어선정 원칙⁶⁾을 정하여 2005년 동경회의, 대구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2. 기존에 행해진 한의학 용어 표준화의 사업의 review

대한한의학회에서 진행한 표준한의학용어제정사업은 분과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몇 가지 단점이 있다.

표준용어 선정에 있어서 학회별 이견의 조정이 어려웠다는 것이고, 한의학계에서 쓰이는 모든 단어가 실리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책자의 보급이 제한

적이었고, 웹에서 접근이 어려워, 한의사들의 관심유발과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한의학 연구원에서 집필한 『한·영 한의학 사전』은 한의학 용어를 D/B화하고 웹 접근성을 높였으나 문헌을 중심으로 용어를 추출하여 실지 사용할 때는 현실적인 한계가 노출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서적들이 한의학 이론의 주된 근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의학계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표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문화 작업에서도 가능한 표현은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진정한 의미의 표준화를 이루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안태(安胎)의 경우 ‘calm the fetus; prevent miscarriage’의 두 용어를 싣고 있어 사전의 기능은 하고 있으나 표준화의 기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후 연구 결과의 홍보나 확산 전략이 없어 『한·영 한의학 사전』을 사용하는 연구자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IST의 경우 한중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한자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한의학을 접하는 학습자, 연구자, 시행자에게 유용한 표준 인식의 틀을 제시하였고 국내의 한의사나 연구자들의 임상 경험 소통 또는 연구의 해외로의 확산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IST는 Xie의 용어집을 저본으로 하고 있고 한중일 3국의 합의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한의학 용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 ‘외감풍사’, ‘진중풍’ 등 비교적 자주 쓰이고 있는 용어들이 IST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3. 중풍 관련 한의학 용어의 표준화 및 영문번역 방안 제시

기존의 한의학 표준 용어집은 세밀한 임상질환의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아서 단어가 누락되고 그 결과로 실제 임상정보의 교환이나 학술정보 교환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질환별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한국에서 가장 임상적으로 빈도가 높고 많이 연구되는 중풍에 관해서 표준화 및 국제용어를 제시하는 바이다.

1) 용어의 선정에 대한 방안

특정질환에 대한 용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어의 선정이 중요하다. 중풍용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중풍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중심으로 한 표준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 연구의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제 임상이나 연구현장에서 사용되는 관련용어의 수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 문헌 및 새로 발표되는 연구논문들을 검색하고 임상의 또는 연구자들의 의견 수집을 통해 일차적으로 질환관련 용어들을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모은 단어들에 대하여 중풍과 관련이 없는 기타 질병의 용어를 제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이며, 그 이후에 중풍에 대한 정의, 병인, 병리, 병기, 치료법, 처방 등으로 다시 2차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모은 단어들에 대하여서는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중풍 용어로 최종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2) 용어의 표준화, 표준안의 영어 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용어의 선정 및 의미에 대한 표준화가 끝난 후에는 용어의 영어 표현의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IST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표현의 표준화의 목표가 연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인 것을 감안한다면 쓰이지 않는 표현을 만들어 쓰는 것보다는 한중일 3국의 합의를 거친 IST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중풍의 한 증상인 “마목”에 대하여 한의학 저널 검색 엔진인 oasis를 이용하여 검색하여 본 결과 저널마다 조금씩 다른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Table 1) 여러 논문에서 쓰인 “mamok”과 같은 표현은 외국의 연구자들이 검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검색상의 어려움이 각종 연구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마목”의 IST표기인 “numbness”를 공통으로 사용하면 각종 연구의 검색 및 활용이 더욱 원활하여 질

Table 1. Diversity of Notation for 麻木

논문의 한글 제목	논문의 영문제목	마목의 영문표기	저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동서 의학적 고찰	The Study on the Eastern and Western Medical Literatures for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Numbness	김동은, 유덕선, 정일민, 이정환, 염승룡, 권영달
일부 한국인 여성에서 뇌졸중 先行因子로서의 麻木	Paresthesia as the Prodrome of Stroke in Korean Women	Mamok	부송아, 선승호, 고성규
척수공동증 의증으로 인한 감각장애 환자 치험 1례	Case Report of Sensory Disturbance with Suspicious Syringomyelia	Mamokbulin	박상무, 강백규, 한덕진, 이정옥, 김희영, 이인, 김강산
하지마목으로 진단된 환자 치험 1례	Treatment of Acute Transverse Myelitis : a case report	Mamok	이수정, 강형원, 류영수, 김태현
麻木과 異常感覺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1)	The study ib clinical relations of Mamok and Abnormal sensations	Mamok	고성규
麻木에 관한 文獻的 考察	A literatual study on Ma-Mok(麻木)	Ma-Mok	鄭錫熙, 李鍾秀, 金性洙, 申鉉大
麻木의 형상의학적 治療	Treatment of Numbness in Hyungsang Medicine	Numbness	강경화, 손제익, 김경철, 이용태
五行和針法을 응용한 麻木환자 치험 2례	A Clinical Report: Two Cases of Psychosomatic Disease Treated by Hwa-acupuncture	Mamok	공현우, 김주원, 신현권, 곡경내, 김효주, 박세진

것이다.

그러나 IST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한의학 용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T는 기본적으로 Xie의 용어집을 저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한의학 용어를 전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IST에 나오지 않는 용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사전 및 서적의 이용이다. IST와 같은 WHO 등의 국제기구에서 인증 받은 표준안 이외에도 한의학적인 용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전 및 서적이 존재한다. 일례를 들어 “A practical dictionary of Chinese Medicine⁷⁾”같은 서적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가급적 실제 영어를 쓰고 있는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적을 참조하는 것이 표준화의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이지만 IST나 각종 서적에 있지 않는 용어를 제대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국내의 기존 연구를 검색하여 용어를 번역하는 것이나 중풍 전문가의 자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목’이라는 중풍용어의 경우 IST나 위에 언급한 서적들에서도 그 용어를 찾지 못했다면 기존의 국내 연구를 검색하여 마목에 대한 쓰임 및 번역을 살펴보고 그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용어를 선정하고 개념의 손실이 없게 정확하게 영역하는 작업에서 최종과정은 여러 입상의와 연구자들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4. 표준안의 홍보

한의학회에서 만든 한의학 용어집 및 한의학 연구원의 한·영 한의학 사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의학 연구원에서 구축해 놓은 D/B의 웹사이트 역시 사라진 상태이며 한의학 용어집은 한의학회 홈페이지의



Fig. 1. Web site of the Korean headache society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이미 훌륭하게 수행된 연구가 발전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히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사용을 편하게 한다. 대한두통학회의 경우 웹사이트에 두통용어를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접근이 쉽고 사용을 편하게 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중풍용어 역시 중풍학회 등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

세계적으로 학문의 교류가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한의학에 대한 기대도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내에서만 한의학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다양한 나라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한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해지고 있다. WHO를 중심으로 한 IST의 발간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의료기관의 의료정보 표준화 작업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학회에서는 2000년부터 한의학용어표준화 사업을 통하여 2006년

한의학용어집을 발간하였다⁸⁾.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준화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경우도 여러 연구결과, 서적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미 발행된 표준화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낮은 편이다. 한의학 고유의 특성상 진단 및 치료의 다양화가 한의학 최고의 장점이라고 믿는 한의사들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과는 별도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는 필요하다. 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 단어의 의미가 제대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매번 의미의 정립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심각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의학은 양의학에 비해 연구인원이 절대적으로 적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질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의 결과물들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어표준화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당장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풍이라는 질병은 한의학 내에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용어 및 진단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의 수준은 제자리에서 머물게 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한의학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들의 표준화나 번역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미룰 수 있거나 외면할 수 있는 일도 또한 아니다.

한의학은 현재 안팎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반 국민들은 한의학 치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한의학의 치료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작이 비록 어렵더라도 한의학 용어의 표준화, 올바른 번역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한의학계 내에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대한한의학회 한의학 용어 및 정보 표준화위원회는 표준용어작성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각 분과학회 단위에서 표준용어집을 만들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외에도 한의학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9,10,11)}. 그러나 많은 수의 한의사들이 이러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실제 이러한 결과물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로는 접근이 용이한 용어검색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책자로 발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IT기술을 이용하여 용어의 검색이 더욱 쉽게 하는 것이 많은 이들이 표준화된 한의학적 용어를 접하고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인 수정보완 역시 책자를 통한 방법보다 훨씬 활발하고 용이하게 될 것이다. 중풍을 용어 표준화 및 국제화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중풍질환이 한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한의학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중풍변증지표 표준화와 동반하여 행해져야 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풍환자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의학에 비해 그 연구 규모가 작고 적절한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쉽지 않아 어려움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협력이 필요하다. 이의 선결 조건은 개념과 용어의 표준화일 것이다.

중풍용어의 표준화 및 국제화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질병이나 소분야의 용어 표준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한의학 용어 표준화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회 및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용어표준화와 바른 번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학회적으로 기초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연구자 간의 다양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의학용어제정위원회. 표준한의학 용어집. 대한한의학회, 2006.
2. 안상우 외 7인. 한의 학술 정보화 연구(II).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107~123.
3. 신민규. 한의학영문용어사전,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5.
4. 김원찬 외 5인. 한의학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한의학연구소논문집. 2004;7:176~196.
5. WHO. Regional strategy for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Manila: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 2002.
6. Shim, B. Principles for Selecting Standard Terms. In: 2nd Informal Consultation 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Tokyo, Japan: WHO/ WPRO, 2005.
7. Nigel wiseman, Feng ye. A practical dictionary of Chinese Medicine(second edition). Paradigm publications. Brookline, Massachusetts. 1998.
8. 심범상. 국제한의학표준용어 및 국제한의학질병분류의 개발 현황 보고. 동의생리병리학지. 2007; 21(3):776~780.
9. 이병욱, 엄동명. 한의학 용어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9;13(2):115~128.
10. 김성문. 문제점과 제안. 한의학 용어의 영어 표준화와 번역. 대한한정보학회지. 2003;9(1): 78~93.
11. 권영규. 생리학용어의 개념통일과 객관화방안. 현곡학회지. 1998;3(1)117~12.